

성과 연령에 따른 서두름 행동 특성*

박 선 진†

이 순 철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연령대를 확대한 경우에도 서두름 행동의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성과 연령에 따른 서두름 행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602명의 성인이 서두름 행동 질문지에 응답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59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서두름 행동은 5개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것은 다시 2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을 확대해도 서두름 행동의 구성요인과 구조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녀의 서두름 행동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여성의 서두름 행동 수준이 남성의 서두름 행동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서두름 행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를 통해 남녀의 서두름 행동 차이의 의미를 해석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서두름 행동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속도저하가 신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적 기제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로 제시하였다.

주요어 : 서두름 행동, 성차, 연령차

* 본 연구는 2011년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교신저자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sundolpin@hanmail.net

우리는 약속에 늦은 경우 즉 약속시간이 지났거나 정해진 시간까지 목적지에 도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걷는다. 그리고 서둘러 걷다가 넘어질 뻔하거나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작은 사고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것처럼 급하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 실수를 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평소보다 크다. 그러나 서두르는 것이 항상 실수나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납품기한이나 작업기간이 급박한 경우 서둘러 작업을 진행하면 정해진 날짜에 맞춰 목표량을 달성하여 납품을 성공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을 다투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서두르는 것은 재빨리 문제해결 방법을 만들어 내 위기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이상의 사례는 서두르는 행동을 통해 우리가 실수나 사고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절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서두른다는 것은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자 바빠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행동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빠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현대사회에서 빠르다는 것은 하나의 경쟁력이요 일종의 능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다 빠른 속도를 가진다는 것은 더 큰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는다. 무언가를 짧은 시간 안에 한다는 것은 같은 양의 일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절약되거나, 같은 시간 안에 상대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언가를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은 더 큰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두름 행동에 대한 관심은 이순철(2001)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순철(2001)은 다

양한 사고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서두름을 지목하였다. 그리고 이순철(2001)은 ① 작업을 보통보다 짧은 시간에,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하고자 할때, ② 빨리 하려고 마음 졸이면서 작업을 서두르는 경우, ③ 빨리 하려고 황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 ④ 빨리 마치려고 빨리 도착하려고 속도를 높이는 경우에 서두름의 심리상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서두름→조급함→당황]이 재해발생과 인과관계를 이루게 된다”며 서두름 행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암시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서두름 행동은 사람들을 침착하지 못하고 쫓기듯이 일을 처리하게 만든다. 따라서 서두름 행동은 과제수행의 질을 낮추거나 사고의 원인으로 간주되었다. 즉, 서두름 행동은 시간적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며 사고 및 재해로 연결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한국인들이 가지는 ‘빨리빨리’라는 스피드가 장점으로 언급되었다. 경향신문 특별취재팀(2006)이 지은 “한국의 힘”에서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김기남 전무는 한국사회의 긍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로 하자가 있으면 곧바로 현장으로 가서 직접 실험하고 당장 답을 찾아내려는 한국 연구원들의 성향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한국인의 빨리빨리 성향은 단기간의 경제성장 및 민주화, IT 산업의 성장을 이루어낸 에너지로 여겨지고 있다(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06). 이렇게 속도가 중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서두름 행동은 점차 중요하고 긍정적인 특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두름 행동의 요인과 구조

단순히 실수나 사고의 원인으로 여겨졌던 서두름 행동에 목표달성에 관여하는 긍정적인 특성이 공존한다고 간주하게 되면서, 이순철과 박선진(2007, 2008)은 서두름 행동의 다양성에 관심을 갖고 서두름 행동에 시간압력, 불편함, 고립, 지루함, 보상기대라는 다섯 가지 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각 요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시간압력은 주어진 시간에 비해 할 일이 많거나 촉각을 다루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이다. 불편함은 낯설거나 편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출현하는 서두름 행동이며, 고립은 한적하거나 낯선 곳에서 혼자 있는 경우 발생하는 서두름 행동이다. 지루함은 지루한 상황이나 귀찮은 과제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이며, 보상기대는 보상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서두름 행동이다. 연구자들(이순철, 박선진, 2008; 김동우, 박선진, 이순철, 2009)은 서두름 행동의 요인을 바탕으로 서두름 행동을 확인생략행동과 성취추구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확인생략행동은 서두름 행동 구성요인 가운데 시간압력, 불편함, 고립으로 이루어진 서두름 행동이다. 이것의 특징은 서두름 행동이 확인행동의 생략이나 실수로 이어져 사고나 재난의 원인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성취추구행동은 서두름 행동 구성요인 중 시간압력, 지루함, 보상기대를 바탕으로 형성된 서두름 행동이다. 성취추구행동은 확인생략행동처럼 행동이 빨라지는 서두름 행동이지만, 정해진 기한내 목표를 달성하는 기폭제가 된다는 특성을 가진다.

남성과 여성의 서두름 행동 특성

서두름 행동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들은 확인생략행동과 성취추구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에 주력하였다. 이에 비해, 남성과 여성의 서두름 행동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며, 각 집단의 서두름 행동 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접근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서두름 행동의 각 요인과 유사한 개념을 바탕으로 남녀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서두름 행동 특성을 기술해보고자 한다.

서두름 행동 가운데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주어진 시간에 비해 할 일이 많거나 촉각을 다루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하는 경우 출현한다. 그리고 시간압력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확인생략행동과 성취추구행동에 관여한다. 즉, 시간압력은 서두름 행동의 기본(base)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녀의 서두름 행동 차이 및 특성에 대해 추리하려면 시간압력 혹은 시간압박에서 나타나는 남녀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경우라도 사람들이 경험하는 시간압력은 동일하지 않다.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과업의 종류와 수가 다르고, 과업이 동일하더라도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Robinson(1990)의 연구에서는 수행하는 활동의 종류나 그 수가 모두 밀도 높게 몰려 있는 시기에 속도감을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승은(2010)은 남녀의 시간압박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연령과 교육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통제하는 경우 여성의 가용 시간 평균이 남성보다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

러한 연구결과들은 시간압력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에서 남녀의 차이가 존재함을 암시하고 있다.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낯설거나 편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출현하는 서두름 행동이다. 따라서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그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낯설거나 편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는 상황은 사회적 기술(social skill) 즉,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 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여러 연구자들(오강섭, 허묘연, 이시형, 1999; Abdi, 2010)이 타인과 상호작용 하는 것과 관련된 능력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주로 한적한 곳, 밤길, 낯선 곳에 혼자 있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다. 김동우 등(2009)은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개인이 노출된 환경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보통 남성보다 여성이 특정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이근후 등, 1995). 이러한 결과는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높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지루한 상황이나 귀찮은 과제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고자 행동의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루할 때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새로운 자극에 대한 욕구나 충동성(impulsivity/impulsiveness)에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자극에 대한 욕구는 감각추구(sensation seeking)성향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나 성차가 뚜렷하다는 일관된 보고가 있다(Zuckerman, Eysenck, & Eysenck, 1978; Ball, Farnill, & Wangeman, 1984; Dahlen, Martin, Ragan, & Kuhlman, 2005). 이러한 결과는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도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사은품을 선착순으로 줄 때, 공짜로 나눠주는 물건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백화점 세일기간에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나타난다. 보상기대와 관련하여 성차를 언급한 연구는 드물지만,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 안면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의미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령 증가에 따른 서두름 행동의 변화

연령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눈에 띄는 변화는 신체적 기능 약화이다. 나이가 들면, 시각과 청각을 비롯한 감각 기능이 저하되어 자극을 탐지하는 능력이 약해진다. 뿐만 아니라 근력 및 운동능력의 저하로 젊은 시절과 비교해 반응속도와 정확성이 낮아진다.

고령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신체기능의 저하는 생산성과 활동성의 위축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노년기 성격에 변화를 가져온다. 신체적 기능 약화와 사회활동 감소로 인해 출현하는 대표적인 성격변화 가운데 하나가 조심성의 증가이다. 노년기가 되면 감각기능의 약화로 일상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경험하면서 고령자의 조심성이 증가한다. 따라

서 고령자는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을 중요시하며 느리더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특징을 보인다(김애순, 2002).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조심성의 증가는 나이가 들수록 속도보다는 정확성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서두름 행동 수준은 낮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문제

기존 연구(이순철, 박선진, 2008; 김동우 등, 2009)에서 밝혀진 서두름 행동 요인과 구조는 주로 20-30대 성인의 응답을 바탕으로 진행된 결과로 다양한 연령대의 반응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때문에 특정 연령대의 특성만이 반영된 결과이며, 현재 서두름 행동의 요인 및 구조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연구문제로 서두름 행동의 요인 및 구조를 다루고자 한다. 즉,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한 경우에도 기존에 밝혀진 서두름 행동의 요인 및 구조가 유지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에 이루어진 서두름 행동 연구는 서두름 행동에 사고로 연결되는 부분과 수행 촉진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과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의 특성은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과 연령에 따른 서두름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성과 따른 서두름 행동을 통해 남녀의 서두름 행동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시간 압박 인식 및 과업처리 방식에서의 성차가 서두름 행동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의 변화를 통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속도 저하가 신체기능에서만 비롯된 것인지,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연구문제로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서두름 행동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남성과 여성의 서두름 행동 수준이 차이가 있는지, 연령에 따라서 서두름 행동에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밝혀내고자 한다.

방 법

조사대상자

20세 이상 성인 602명이 응답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자의 자료를 제외한 59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 가운데 남성과 여성은 각각 335명, 256명이었다. 연령분포는 20세 부터 89세까지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연령

표 1. 조사대상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대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성별 \ 남	50	52	138	51	44	335
성별 \ 여	85	38	65	32	36	256
합계	135	90	203	83	80	591

은 43.37($SD=15.23$)세였다.

연령대별 규모를 살펴보면, 20-29세 집단은 135명, 30-39세 집단은 90명, 40-49세 집단은 203명, 50-59세 집단은 83명, 60세 이상 집단은 80명이었다(표 1).

서두름 행동 질문지

이순철과 박선진(2008)이 개발한 서두름 행동 질문지를 사용하여 서두름 행동 수준을 측정하였다. 서두름 행동 질문지는 전체 27개 문항으로 응답자가 27개 상황에서 자신이 서두르는 정도를 “전혀 서두르지 않는다”부터 “매우 서두른다”까지로 반응하는 리커트 양식이다.

서두름 행동 질문지 문항 가운데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문항(예, 소개팅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과 기존 연구(이순철, 박선진, 2008; 김동우 등, 2009)의 요인분석결과에서 요인적재치가 낮은 문항(예, 식당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때)을 제외하여 2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22개 문항 신뢰도는 Cronbach' $a=.91$ 로 나타났다.

분석

서두름 행동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령과 성에 따른 서두름 행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의 서두름 행동 각 구성요인 점수에 대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령과 서두름 행동의 상관분석을 통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서두름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으며, 연령 집단별 서두름 행동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서두름 행동 5요인의 특성

서두름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각 요인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주축요인 추출방법과 오블리민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서두름 행동은 5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표 2). 5가지 요인은 설명변량은 총 65.65%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별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요인 1은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과 식사할 때, 친하지 않은 사람과 마주쳤거나 싫은 사람이 앞에 있는 경우 등과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요인 1의 설명량은 34.26%였으며, 요인 1을 구성하는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a=.80$ 이었다.

요인 2는 처리해야하는 일이 한꺼번에 여러 개 생긴 경우, 시간에 쫓기고 있을 때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총 변량 가운데 10.7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인 2를 구성하는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a=.90$ 이었다.

요인 3은 사은품을 선착순으로 줄 때, 공자로 나눠주는 물건이 한정되어 있을 때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설명변량은 8.64%, 문항 신뢰도는 Cronbach' $a=.87$ 로 나타났다.

요인 4는 지금 하는 일이 귀찮은 일인 경우, 좋아하지 않는 일을 마지못해 할 때 등의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6.22%를 설명하고 있었다. 요인 4를 구성하는 문항 신뢰도는 Cronbach' $a=.66$ 이었다.

끝으로 요인 5는 한적한 곳에서 혼자 걸을 때, 뒤에서 누군가 따라 올 때 등의 문항으로

표 2. 서두름 행동 1차 요인분석 결과

문항	내용	주요인적재치(Primary factor loading)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5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과 식사할 때	.754				
1	친하지 않은 사람과 마주쳤을 때	.663				
11	싫은 사람이 앞에 있을 때	.569				
22	싫어하는 사람과 이야기 할 때	.555				
9	내키지 않은 친구와 만나는 경우	.511				
2	몸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306				
20	처리해야하는 일이 한꺼번에 여러개 생긴 경우		-0.894			
21	시간에 쫓기고 있을 때		-0.868			
17	하고 있는 일의 양이 많을 때		-0.811			
10	하루에 마무리 해야하는 일을 여러 가지 일때		-0.729			
15	시간을 다투는 비상상태에서 일하는 경우		-0.667			
4	한꺼번에 해야하는 과제의 양이 많을 때		-0.653			
16	사은품을 선착순으로 줄때			-0.942		
7	공짜로 나눠주는 물건이 한정되어 있을 때			-0.856		
14	백화점 세일기간에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경우			-0.745		
19	지금 하는 일이 귀찮을 일인 경우				0.873	
3	좋아하지 않는 일을 마지못해 할 때				0.510	
12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지루할 때				0.485	
18	한적한 곳에서 혼자 걸을 때					-0.559
8	뒤에서 누군가 따라 올 때					-0.515
6	혼자 밤길을 걸을 때					-0.485
13	낮선 곳에 혼자 있을 때					-0.414
	설명변량(%)	34.26	10.72	8.64	6.22	5.81
	고유치	7.54	2.36	1.90	1.37	1.28
	신뢰도(Cronbach' α)	.80	.90	.87	.66	.80

이루어져 있었으며, 설명량은 5.81%, 요인 구문항 신뢰도 Cronbach' α =.80이었다.

요인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요인 1은 불편

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이었다. 그리고 요인 2는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요인 3은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표 3. 서두름 행동의 2차 요인분석 결과

내용	주요인적재치(Primary factor loading)	
	요인 1	요인 2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607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738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366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341	.328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761
고유치	2.67	.82
설명량	43.55	6.55

이었다. 요인 4는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이었으며, 요인 5는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이었다.

한편, 서두름 행동의 요인들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확인생략행동과 성취추구행동의 구조를 이루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주축 요인 추출방법과 오블리민 회전방식을 사용하여 서두름 행동의 5가지 요인에 대한 2차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서두름 행동의 5가지 요인은 두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의 설명변량은 총 50.10%로 나타났다.

요인 1은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설명량은 43.55%였다.

요인 2는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과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총 6.55%를 설명하고 있었다.

2차 요인분석을 통해 서두름 행동의 5개 요인은 2개의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취추구행동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던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이 확인생략행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확인생략행동은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성취추구행동은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표 3).

남녀의 서두름 행동 특성

남녀의 서두름 행동 특성을 살펴보고자 남녀의 서두름 행동 점수를 요인 별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우선,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의 점수는 남성이 평균 3.22점, 여성이 3.45점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서두름 행동 수준이 높았다($t=-3.47, p<.01$).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의 점수는 남성이 평균 2.52점, 여성이 평균 2.65점으로 여성이 더 높았다($t=-2.39, p<.05$).

표 4. 서두름 행동 요인별 남녀 평균점수(SD)

단위: 점(5점 만점)

서두름 행동	남성	여성	t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3.22(0.84)	3.45(0.78)	-3.47**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2.52(0.65)	2.65(0.67)	-2.39*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2.39(0.78)	3.13(0.82)	-11.23***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2.43(0.72)	2.46(0.78)	-0.54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2.71(0.79)	2.91(0.83)	-3.01**

* $p < .05$, ** $p < .01$, *** $p < .001$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의 평균점수는 남성이 2.39점, 여성이 3.13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 = -11.23, p < .001$).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남성의 평균점수가 2.43점, 여성의 평균점수가 2.46점으로 두 집단의 차이가 없었다.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수준은 남성이 평균 2.71점, 여성이 평균 2.91점으로 여성이 높았다($t = -3.01, p < .01$).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남녀의 서두름 행동 특성을 정리하면,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을 제외한 불편함, 시간압력, 보상기대,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에서 일관되게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두름 행동의 5요인 가운데 남성과 여성 모두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두름 행동에서 남녀의 차이는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에서 가장 큰 모습을 보였다.

연령과 서두름 행동의 관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서두름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과 서두름 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령대

를 구분하여 어떤 연령대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연령과 서두름 행동의 상관분석 결과, 연령은 서두름 행동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 -.21, p < .001$).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서두름 행동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두름 행동의 요인과 연령의 상관분석에서 연령은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r = -.27, p < .001$;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r = -.17, p < .001$;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r = -.21, p < .001$)(표 5).

연령집단별 서두름 행동 수준 차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서두름 행동 수준이 감소한다면, 어떤 연령대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고자 연령집단을 구분하여 집단별 서두름 행동의 평균점수 차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서두름 행동의 평균 점수는 20-29세 집단이 2.94점, 30-39세 집단이 2.88점, 40-49세 집단과 50-59세 집단 모두 2.78점, 60세 이상 집단은

표 5. 연령과 서두름 행동의 상관분석 결과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연령	-.21***	-.27***	-.17***	-.05	.03

*** $p < .001$

표 6. 연령집단별 서두름 행동 평균점수

단위: 점(5점 만점)

변인	연령집단					F	사후검증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서두름행동	2.94(0.47)	2.88(0.59)	2.78(0.56)	2.78(0.58)	2.57(0.78)	5.58***	a, b > e
시간압력	3.55(0.67)	3.48(0.84)	3.33(0.81)	3.25(0.77)	2.83(0.94)	11.45***	a, b, c, d > e
불편함	2.70(0.62)	2.64(0.59)	2.55(0.64)	2.58(0.66)	2.35(0.79)	3.88**	a, b > e
고립	2.83(0.93)	2.78(0.82)	2.61(0.82)	2.72(0.83)	2.71(1.01)	1.49	해당사항 없음
지루함	2.32(0.72)	2.47(0.84)	2.48(0.65)	2.57(0.72)	2.40(0.89)	1.78	해당사항 없음
보상기대	3.02(0.76)	2.82(0.84)	2.80(0.82)	2.67(0.70)	2.52(0.84)	5.59***	a > d, e

* $p < .05$, ** $p < .01$, *** $p < .001$

주. 시간압력 :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불편함 :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고립 :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지루함 :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보상기대 :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a=20-29세, b=30-39세, c=40-49세, d=50-59세, e=60세 이상

2.57점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집단별 서두름 행동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58$, $p < .001$).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60세 이상 집단의 서두름 행동 수준은 20-29세 집단과 30-39세 집단의 서두름 행동 수준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서두름 행동의 요인을 구분하여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수준은 20-29세 집단이 평균 3.55점, 30-39세 집단이 평균 3.48점, 40-49세 집단이 평균 3.33점, 50-59세 집단이 평균 3.25점, 60세 이상 집단이 평균 2.83점으로 나타나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수준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F=11.45$, $p < .001$). 사후분석 결과, 연령집단별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수준은 60세 이상 집단만 다른 연령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수준은 20-29세 집단이 평균 2.70점, 30-39세 집단은 평균 2.64점, 40-49세 집단은 평균 2.55점, 50-59세 집단은 평균 2.58점이었으며, 60세 이상 집단의 점수는 평균 2.35점으로 연령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88, p<.01$). 그리고 사후분석 결과, 60세 이상 집단이 20-29세 집단과 30-39세 집단보다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수준이 낮았다.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수준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29세 집단이 평균 2.83점, 30-39세 집단이 평균 2.78점, 40-49세 집단이 평균 2.61점, 50-59세 집단이 평균 2.72점, 60세 이상 집단이 평균 2.71점으로 연령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수준은 20-29세 집단에서 평균 2.32점, 30-39세 집단에서 평균 2.47점, 40-49세 집단에서 평균 2.48점, 50-59세 집단과 60세 이상 집단에서 각각 평균 2.57점과 2.40점으로 연령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끝으로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수준은 20-29세 집단에서 평균 3.02점, 30-39세 집단이 평균 2.82점, 40-49세 집단은 평균 2.80점, 50-59세 집단은 평균 2.67점, 60세 이상 집단은 평균 2.52점이었다.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수준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F=5.59, p<.01$). 그리고 사후분석 결과, 50-59세 집단과 60세 이상 집단이 20-29세 집단보다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응답자의 연령대와 규모가 확대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두름 행동의 요인과 구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두름 행동은 선행연구(이순철, 박선진, 2008; 김동우 등, 2009)에서 밝혀진 것과 일관되게 시간압력에서 나

타나는 서두름 행동,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이라는 5개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5개 요인은 확인생략 행동과 성취추구행동이라는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발견한 서두름 행동의 요인과 구조가 연령대를 확대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서두름 행동은 실수나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수행촉진으로 연결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서두름 행동이라는 특성이 부정적이지만 한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특성이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Ball(2010)이 서두름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제시한 것과 비교해, 서두름 행동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시도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인이 가지는 서두름 행동의 특이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서두름 행동의 요인이 확인생략행동과 성취추구행동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서두름 행동의 요인은 선행연구결과와 다르게 편성되었다. 확인생략행동에는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이 관여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이순철, 박선진, 2008; 김동우 등, 2009)에서는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이 성취추구행동에 관여하는 요인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확인생략행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연령대가 다양하고 그 규모 또한 선행연구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결과가 더 신

되롭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지루하거나 귀찮은 과제 수행 속도는 높이지만 수행 정확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속도와 정확성의 전환(trade-off), 즉 속도가 증가하면 정확성은 감소한다는 속도와 정확성의 관계와 지루하거나 귀찮은 과제에서 작업자의 수행이 좋지 않음을 고려하면,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실수나 사고로 이어지는 확인생략행동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이 확인생략행동으로 이동하면서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과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이 성취추구행동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생략행동을 형성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불편하거나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리고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밤에 혼자 있거나 낯선 곳에 있는 경우에 나타난다.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귀찮거나 재미없는 일을 하는 경우 발생한다. 즉, 이러한 서두름 행동은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두렵고 즐겁지 않은 환경에 대한 노출 정도를 줄여준다. 서두름 행동 요인 가운데,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나쁜 결과를 감소시키는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확인생략행동을 구성하는 서두름 행동은 비호의적 또는 혐오적인 것을 제거하는 부정 강화(negative reinforcement)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성취추구행동을 구성하는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선착순으로 선물을 받거나 백화점 세일 기간에 물건

을 사려고 할 때 나타난다.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서두르는 것으로 인해 원하는 것을 얻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높이를 결과를 가져온다. 즉,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호의적인 대상을 제공하는 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증가시키고 나쁜 결과는 감소시키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현성용 등, 2008, p110). 확인생략행동과 성취추구행동이 각각 나쁜 결과는 감소시키고 좋은 결과를 증가시키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서두름 행동은 강화에 의해 습득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녀의 서두름 행동을 비교한 결과,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을 제외한 시간압력, 불편함, 고립,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수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에서 보이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가용시간인식, 생애과업의 경험 방식, 일처리 방식에 대한 남녀 차이와 관련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가용시간 인식과 관련하여 여성은 남성보다 가용시간을 더 적다고 인식한다(차승은, 2010). 그리고 남성은 생애과업을 순차적으로 경험하는데 비해 여성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순환적이고 복합적으로 경험한다(Maines & Hardesty, 1987). 게다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남녀의 차이가 있어, 처리해야 하는 일이 여러 가지인 경우 여성은 처리해야 하는 일을 한꺼번에 수행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진다(Hall, 1983; 차승은, 2010에서 재인용). 이러한 남녀 차이로 남성과 여성이 물리적으로 같은 시간 내에 같은 양의 과업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하

는 시간압력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서두름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경우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대인불안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오강섭 등, 1999; Abdi, 2010). 따라서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에 대한 남녀의 반응은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이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불안이 아닌 다른 심리적 기제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Rudolph(2002)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여자아이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일들을 더 많이 지각하고 더 큰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록 이러한 결과가 청소년기의 남녀를 바탕으로 밝혀진 것이지만, 이것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이나 그러한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건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보여준다. 즉, 불편하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 혹은 싫은 사람과 함께 있는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부정적인 사건을 더 많이 지각하고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의 수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모습을 보인 것이다.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낯선 장소이거나 혼자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여성

은 남성보다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낯선 장소나 혼자 이거나 혼자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두려움이나 공포는 남성보다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에서 나타난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특정상황에 대한 남녀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특정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취하는 행동의 강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과 관련된 상황이 여성에게 더욱 익숙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사은품이나 백화점 세일처럼 여성들에게 친숙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즉,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과 관련된 상황이 남성과 여성에게 제시하는 보상기대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서두름 행동을 보였을 수 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평가하는 보상기대 수준에 차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연령과 서두름 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나이가 들면서 서두름 행동 수준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서두름 행동

수준의 감소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이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감각과 지각 능력을 비롯하여 근력 및 민첩성과 같은 신체적 기능이 약화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사람들은 다양한 실수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신속성의 가치는 줄어들며 느리더라도 실수하지 않으려는 특징, 조심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속도의 증가, 신속성의 특징을 가지는 서두름 행동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서두름 행동 수준을 측정하여, 서두름 행동의 요인과 구조를 확인하고 성과 연령이라는 기본적인 변인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서두름 행동 요인과 구조가 확인되었으며 남녀의 서두름 행동 특성과 연령에 따른 서두름 행동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남녀의 서두름 행동 특성은 남녀의 특성에 따라 서두름 행동의 기저선(base-line)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패턴을 통해, 서두름 행동에도 각 연령대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들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각 연령대의 행동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서두름 행동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이상의 결과들은 서두름 행동에 대한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기에, 향후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세부적으로 서두름 행동은 요인의 결합에 따라 해야할 행동의 생략이나 실수로 연결되어 사고나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인생략행동과 수행 촉진과 관련되어 기한내 목표달성으로 이어지는 성취추구행동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결과

는 산업장면이나 교통장면처럼 재난이나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존재하는 장면에서 재난발생과 관련된 요인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06). 우리도 몰랐던 한국의 힘. 서울: 한스미디어.
- 김동우, 박선진, 이순철 (2009). 서두름 행동이 운전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4), 487-506.
- 김애순 (2002).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주) 시그마프레스.
- 박선진, 이순철 (2009). 서두름 행동이 과제수행의 속도와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및조직, 22, 469-485.
- 오강섭, 허묘연, 이시형 (1999). 대인불안과 사회문화적 요인의 상관관계. 신경정신의학, 38(1), 64-76.
- 이순철 (2001). 산업재해와 오류행동. 사회과학연구, 18(2), 231-250,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순철, 박선진 (2007). 서두름의 심리적 구조. 2007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512-513.
- 이순철, 박선진 (2008). 서두름 행동의 심리적 구조 및 특성 파악: 서두름 행동, 확인생략행동, 성취욕구 간의 관계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2), 63-81.
- 차승은 (2010). 남녀의 시간압박인식 차이와 관련요인 탐색. 한국인구학, 33(1), 27-49.
- 현성용, 김교헌, 김미리혜, 김아영, 김현택, 박동건, 성한기, 유태용, 윤병수, 이순목, 이

- 영호, 이재호, 이주일, 진영선, 채규만, 한광희, 황상민 (2008). *현재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 Abdi, B. (2010).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skills, problem behaviours and academic competence of Iranian kindergarten children based on their parent and teacher rating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5, 1175-1179.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5).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 4판*.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atal Disorders]. (이근후 등 역). (원전 1994년에 출판)
- Ball, I. L., Farnill, D., & Wangeman, J. F. (1984). Sex and age differences in sensation seeking: Some national comparison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75(2), 257-265.
- Ball, K. (2010). What's the Hurry? *Association of peri-Operative Registered Nurse(AORN)*, 91, 647-648.
- Dahlen, E. R., Martin, R. C., Ragan, K., & Kuhlman, M. M. (2005). Driving anger, sensation seeking, impulsiveness, and boredom proneness in the prediction of unsafe driving.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37, 341-348.
- Maines, D., & Hardesty, M. (1987). Temporality and Gender: Young Adults' Career and Family Plans, *Social Forces*, 66, 102-120.
- Rudolph, K. D. (2002).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Responses to Interpersonal Stres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0, 3-13.
- Zuckerman, M., Eysenck, S. B., & Eysenck, H. J. (1978). Sensation seeking in England and America: Cross-culture, age, sex comparis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1), 139-149.

논문 투고일 : 2011. 05. 02
 1 차 심사일 : 2011. 09. 09
 게재 확정일 : 2011. 10. 24

Gender and Age Difference in Hasteful Behavior

Sun Jin Park

Soon Chul Lee

Dep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whether hasty behaviors were structurally maintained even after the expansion of age zones and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hasty behaviors by gender and age. To this end, an analysis was made of the data of 591 respondents after excluding the insincere respondents from the 602 adults who had replied to the survey on hasty behaviors. Its results showed that a hasty behavior consisted of 5 factors regardless of age. Even when age was expanded, a hasty behavior maintained its structural stability. On the other hand, women were higher than men in the average score of hasty behaviors. Lastly, hasty behaviors decreased with the increase in age. The gender differences in hasty behaviors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ose in time pressure perception and task processing method. They were presented to show that the speed reduction by age increase is related to psychological mechanism as well as bodily function.

Key words : *Hasteful Behavior, gender difference, age difference*